1 제2차 세계대전 배경 **2** 탈출과 생존 **3** 스타 감독 & 제작자 아내

군함도 vs 덩케르크, 닮은 꼴 다른 매력

군함도 26일 개봉…덩케르크와 흥행대결 공통분모 많은 전쟁 블록버스터 관심 UP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왼쪽사진)가 26일 개봉함에 따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와 박빙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배경인 두 영화는 생존을 위한 탈출의 서사로 관객에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워너브라더스코리아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같은 시기 스크린에서 맞붙는다. 완전히 다른 영화이면서도 한편으론 공통점도 여럿이라 관심을 더한다.

류승완 감독의 '군함도'가 26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23일 현재 예매율이 57%까지 올랐다. 20일 먼저 공개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는 첫 주에 130만 여명을 동원,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여름 기대작으로 꼽히는 두 영화는 '군함도' 개봉 이후 치열한 흥행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관객의 지지와 기대를 골고루 받는 만큼, 동반 흥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두 영화는 알고 보면 상당한 공통점도 지니고 있어 이를 비교해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군함도'와 '덩케르크'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다. 차이가 있다면 '군함도'가 전쟁 막바지인 1945년을 다룬 반면 '덩케르크'는 전투가 치열했던 1940년을 그린다.

실화를 소재 삼은 '탈출과 생존의 서사'라는 사실에서도 두 영화는 겹친다. '덩케르크'는 영국 등 연합군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에서 탈출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기록에 입각해 그렸다. 총격이 난무하는 전쟁이 아닌, 살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땅과 바다, 하늘이라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시간차를 두고 완성해 관객을 매료시키고 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일어난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을 역사적인 토대 안에서 다루지만 극의 핵심인 대탈출은 상상으로 만들어냈다. 류승완 감독은 "시대적 배경, 군함도라는 공간은 최대한 고증에 의했다"면서도 "인물이나 드라마틱한 상황과 사건은 실제를 기반으로 창작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관객의 '팬심'을 자극하며 매번 새로운 흥행사를 쓰는 두 감독이 전쟁 블록버스터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 물론 시선은 다르다. 영국 출신인 놀란 감독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도운 영국 국민의 자부심을 영화에 그대로 녹여 넣은 반면, 류승완 감독은 우리의 지난 역사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데 목소리를 낸다.

류승완 감독은 오래 전 '군함도'가 가진 사연과 이미지에 매료돼 영화화를 염두에 뒀다. 다만 전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약해지는지, 또한 나약한 줄 알던 이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이려 했다"고 밝혔다.

이들 영화와 두 감독을 둘러싼 단연 흥미로운 공통점은 바로 감독들의 아내가 영화의 제작자라는 사실. 류승완 감독은 아내인 강혜정 대표와 2005년 영화사 외유내강을 설립해 '부당거래', '베테랑'의 성공을 이뤘고 이번 '군함도'로 가장 큰 도전에 나섰다.

놀란 감독의 아내인 프로듀서 엠마 토머스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기획자이자 제작자. 감독의 데뷔작인 2000년 '메멘토'부터 함께 하며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노무현입니다' 가고 '무현:파이널 컷' 온다

미공개 영상 추가해 내달 재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일으킨 흥행 돌풍이 잦아드는 즈음, 다시 '노무현'이 온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감독 전인환)가 '파이널 컷'이라는 부제를 달고 8월 말 다시 관객을 만난다.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난해 10월26일 개봉했다. 영화는 2000년 지역주의 해소를 내걸고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 2016년 시사만화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전남 여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펼친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과 인간적 면모를 담아냈다. 상당한 호평 속에 전국 19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지난해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당초 선거법 등 일부 고려해야 할 상황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가 아니었다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로 인해 선거법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작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언해줄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었다. 또 러닝타임 등도 감안해야 했다.

8월 다시 개봉하는 '무현, 두 도시 이야기:파이널 컷'은 이 같은 '제한'을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백무현 전 후보의 미공개 영상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2000년 당시 모습, 그리고 겨우내 이어진 촛불집회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새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5월 말 개봉한 '노무현입니다'가 23일 현재 전국 185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흥행한 데 이어 '무현, 두 도시 이야기:파이널 컷'이 극장가에 어떤 울림을 가져다줄지 기대를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완전체 소녀시대 출격 '2년 만이야'

내달 데뷔 10주년 맞아 정규 6집 발매

드디어 소녀시대가 돌아온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가 8명 완전체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기념 팬미팅을 시작으로 새 앨범 발표와 함께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친다. 이들이 완전체로 모이는 것은 2015년 '라이언 하트'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솔로 가수,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멤버별로 경력을 쌓아나가다 오랜만에 뭉친다.

23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앨범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데뷔 일인 8월5일 전후로 정규 6집을 발표한다.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당일인 5일 대규모 팬미팅도 준비되어 있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홀리데이 투 리멤버'를 열고 팬들과 만난다.

최근 미국 빌보드에서 선정한 '10년간 최고의 케이팝 걸그룹' 1위에 꼽힌 소녀시대는 이번 활동으로 또 한번 "역시 소녀시대"라는 위상을 재확인시켜줄 전망이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치는 만큼 이들은 왕성한 방송 활동도 계획되어 있다. 각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먼저 이달 29일 KBS 2TV '해피투게더' 녹화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종합편성채널 JTBC '아는 형님'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줄줄이 출연한다.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도 의미 있는 1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2014년 그룹에서 탈퇴해 혼자 활동하고 있지만, 데뷔한 날짜가 같은 만큼 제시카도 10주년을 기념한 새 앨범과 팬미팅을 연다.

제시카는 8월13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제시카 온 클라우드 나인 10주년 기념 라이브 인 서울'을 연다. 그동안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미니콘서트와 팬미팅을 겸한 자리다. 특히 8월중 세 번째 미니앨범도 발표한다. 제시카는 이날 팬미팅 자리에서 신곡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서유정, 3살 연상 회사원과 9월 결혼

배우 서유정(39)이 9월29일 결혼한다. 그의 소속사 엠지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유정은 이날 3살 연상의 회사원과 웨딩마치를 올린다. 예식장소는 미정이며, 양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 조용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서현진(37)은 11월25일 결혼식을 올린다. 서현진은 이날 서울 압구정 성당에서 5세 연상의 의사와 화촉을 밝힌다. 서현진은 약 1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2001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현진은 200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4년 퇴사해 방송인으로 활동중이다.

김병만, 미국서 척추골절 수술 후 회복 중

개그맨 김병만이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 도중 척추골절로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소속사 SM C&C에 따르면 김병만은 스카이다이빙 한국 국가대표 자격을 얻기 위해 2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훈련을 받던 중 급변하는 바람 방향으로 인해 착륙 시 부상을 당했다. 검사 결과, 척추 뼈의 골절이 있으나 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서 수술 후 1·2주의 회복기를 거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완전한 회복 기간은 두 달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만은 현재 SBS '정글의 법칙'과 '주먹쥐고 뱃고동'에 출연 중이다.

'죽어야 사는 남자' 이슬람 문화 희화 사과

MBC 수목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 측이 이슬람 문화를 희화화했다는 지적에 사과했다. 제작진은 21일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드라마는 가상의 보두안티아국을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등장인물, 인명, 지역, 지명 등은 픽션"이라면서 "아랍 및 이슬람 문화를 희화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드라마는 히잡을 쓰고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무슬림으로 나오는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 이들이 코란 앞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장면 등으로 일부 비판을 받았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7월 16일~7월 22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스파이더맨: 홈 커밍	6,659,151	07/05
2	덩케르크	938,195	07/20
3	47 미터	332,251	07/19
4	카3: 새로운 도전	381,896	07/13
5	박열	2,326,127	06/28
6	플립	245,750	07/12
7	내 사랑	157,571	07/12
8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73,997	07/20
9	예수는 역사다	95,397	07/13
10	다크 나이트	4,168,951	2008 08/06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저소음 컴프레셔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냉난방기 전문판매기업 소선공조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어디서나 무료)